

에이치케이이노엔, 코스닥 상장 목표로 증권신고서 제출!

- ▶ 상장 후 글로벌 진출 가속화 및 신사업 확장으로 지속 성장
- ▶ 7월 22~23일 수요예측, 29~30일 청약 거쳐 8월 초 코스닥 상장 목표

<2021-06-30> 바이오헬스 전문 기업 에이치케이이노엔(이하 'inno.N', 대표이사 강석희)이 30일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총 공모주식수는 10,117,000주로 공모예정가는 50,000원~59,000원, 총 공모금액은 5,058억 원~5,969억 원 규모다. 7월 22일~23일 수요예측과 29일~30일 청약을 거쳐 8월 초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다.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JP모간증권회사가 주관을 맡았다.

2014년 설립된 inno.N은 전문의약품 및 HB&B(Health Beauty&Beverage) 사업을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 핵심 역량은 ▲신약, 바이오 연구개발(R&D) 역량 ▲우수한 제조 역량 ▲안정적인 제품 포트폴리오 등을 꼽을 수 있다.

inno.N은 37년 업력 기반의 독보적인 연구개발(R&D) 역량과 제조 역량으로 국내 제30호 신약위 식도역류질환 치료제 'K-CAB(이하, 케이캡)'을 개발했다. 케이캡은 기존 위산분비억제제 대비 신속한 약효와 우수한 약효 지속력으로 위산분비 억제에 효과를 보이는 차별화된 제품이다. 출시 초기부터 의료진의 높은 관심을 받으며 출시된지 6개월 만에 국내 시장점유율(M/S) 1위를 달성해 단숨에 매출 1,000억원을 넘어서는 신화를 만들었다.

이 밖에 암, 간 질환, 감염, 자가면역질환 분야의 신약, 바이오의약품 파이프라인을 지속 확보하며 포스트(Post) 케이캡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inno.N은 신약 및 바이오의약품을 포함한 연구 파이프라인이 20여 개에 달한다.

더불어 회사는 안정적인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했다. 케이캡 외에도 항암, 소화 등 7개 이상의 치료영역 내 160여개 이상의 만성질환 중심 전문의약품과 컨디션, 헛개수 등 히트 제품을 지속 출시하며 전문의약품 및 숙취해소 음료 시장에서 고속 성장했다. 특히 회사는 높은 비중의 자체 개발 역량으로 만성질환 시장을 공략했다. 2019년 질병관리청 조사에 따르면 만성질환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68.1조원)의 83.9%를 차지하며, 인구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 시장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inno.N은 설립 후 지속 성장 끝에 2020년 사상 최대 실적인 매출액 5,984억 원, 영업이익 870억 원을 달성했다.

향후 inno.N은 30호 신약 케이캡을 통해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고 신사업을 지속 확장할 계획이다. 특히 케이캡은 국가별 맞춤 전략을 통해 글로벌 시장 도모를 강화할 계획이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 시장 개발 가속화 및 기술 이전 국가를 2028년 내 100개국 진출을 목표로 공격적인 글로벌 시장 공략에 주력하고 있다. 차세대 영역인 세포유전자치료제 시장에도 진출해 전용 연구 개발,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고휘암, 혈액암 중심의 면역 세포유전자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더불어 건강브랜드 뉴틴과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클레더마, 두피탈모케어 브랜드 스칼프메드를 출시해 건강기능식품 및 HB&B(Health Beauty&Beverage) 사업 부문도 확장하며 혁신을 지속하고 있다.

inno.N 강석희 대표이사는 “상장 이후 글로벌 진출 가속화 및 신사업 확장을 통해 회사의 개발 역량을 한단계 끌어올려 K-바이옌을 이끄는 글로벌 탑티어 바이오헬스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참고자료>

[에이치케이이노엔 IPO 일정(예정)]

증권신고서 제출	2021년 6월 30일
수요예측	2021년 7월 22일 ~ 23일
청약	2021년 7월 29일 ~ 30일
코스닥 상장	2021년 8월 초 예정
공모주식 수	10,117,000 주
주당 공모가 액	50,000 원 ~ 59,000 원
공모 금액	5,058 억 원 ~ 5,969 억 원
상장 예정 주식수	28,904,499 주
예상 시가총액	1 조 4,452 억 원 ~ 1 조 7,053 억 원

※ '세포유전자치료제'

: 환자의 세포를 치료에 걸맞게 개량한 후 다시 환자에 주입해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제다. T세포, NK세포 등 환자의 면역세포에 암세포의 특정 항원을 인지할 수 있는 '키메라 항원 수용체(CAR)'를 넣어 암세포를 보다 효율적으로 파괴할 수 있도록 만든 CAR-T, CAR-NK세포치료제 등이 대표적인 세포유전자치료제다.

☐ 자료문의: IR큐더스 한정선 이사 (02-6011-2000 #120) / IR큐더스 안재희 선임 (02-6011-2000 #213)